

國際石油情勢

自由世界에 있어서 來年 3月末의 石油在庫量은 45億배럴以下로 감소하여 石油의 과잉재고는 거의 해소되는 셈이된다. 이것은 石油의 供給過剩이 來年 4月末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야마니 石油相의 発言이 근거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OPEC (石油輸出國機構)는 지난 10월 29일 제네바臨時總會에서 2년반만에 原油價格統一에 성공했다. 이것은 原油需給의 緩和에도 불구하고 大幅의 增産을 계속함으로써 OPEC의 強경 産油國에 對해 油價引下 壓力을 가해온 사우디 아라비아 價格政策의 勝利로 평가되고 있다.

OPEC의 基準原油價格은 배럴당 34달러로 統一되어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라비안 라이트原油를 2달러 引上하는 한편 35달러와 36달러의 別도의 基準原油價格을 채용해온 産油國은 1~2달러씩 가격을 인하했다.

基準原油의 價格수준과 아울러 注目되어온 原油의 價格差에 對해서는 아프리카原油의 價格差가 3달러 내지 4달러로 設定되었다. 注目되는 것은 中東原油에서는 基準原油와 重質油의 價格差가 확대되어 重質油의 가격인상이 小幅에 그쳤다는 點이다. 原油의 價格差는 앞으로 原油市況의 如何에 隨時로 變경될 것이나 基準原油價格은 82년말까지 凍結토록 결정되었다.

OPEC總會에서는 生産調整問題는 토의되지 않았으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금까지의 主張대로 統一價格의 成立을 계기로 하루 8백 50만배럴로 약 75만배럴의 減産을 발표했다.

原油價格의 統一로 OPEC原油의 加重平均價格은 배럴당 33달러 80센트에서 34달러 30센트로 약 50센트 上昇된 셈인데 그것은 年初의 平均價格 34달러 70센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基準原油價格이 OPEC의 決議대로 82년말까지 凍結될 경우 原油價格은 2년간 掘置되는 結果가 되어 OPEC原油의 實質價格은 지금까지 사우디 아라비아가 主張해온 배럴당 28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中東原油의 價格差의 조정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石油政策을 반영한 것으로서 注目된다. 이번 總會의 결정대로 아라비안 헤비原油의 가격인상폭은 약 50센트에 머물러 基準原油와 의 價格차는 이전의 배럴당 1달러에서 2.5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라비안 라이트등 輕質原油의 생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최종적으로는 原油매장량과 같은 비율로 책정하는 정책을 밝히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原油매장량에서 차지하는 輕質原油의 비율은 48%이기 때문에 현재 65%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生産比率도 장기적으로는 이 수준으로 인하시키게 될 것 같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重質油의 가격인상폭을 낮춘 것은 重質油판매를 促進시킴으로써 重質油의 생산비율을 높히려는 戰略으로 풀이되고 있다.

統一價格과 함께 注目되는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 減産이 石油需給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루 8백50만 배럴의 生産량은 年平均 原油生産의 上限으로서 사우디 아라비아原油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실제 生産량은 이 수준보다 더욱 下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9월에 早期價格引下를 단행한 나이지리아를 제외하면 이번의 가격인하 효과가 原油生産의 증가에 반영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타임래그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原油生産은 당분간 하루 8백 50만배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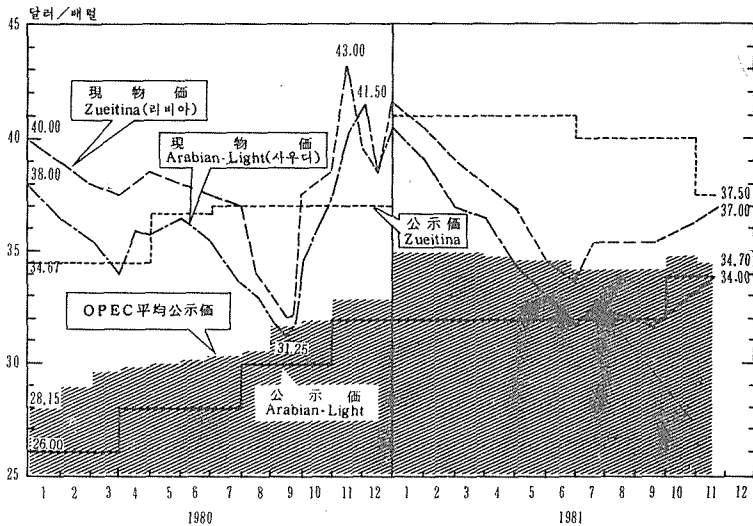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 減産이 石油需給에 미치는 영향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生産이 하루 8백 50만배럴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限,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이번의 油價單一化로 나이지리아등의 原油生産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點과 自由世界の 石油在庫수준이 여전히 높아 49억배럴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自由世界の 石油需要는 겨울철의 石油 需要期를 맞아 하루 4천 8백만배럴 내지 4천 9백만 배럴로 上昇하면서 OPEC의 原油生産량은 최근의 2천만 배럴에서 2천 2백만배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盛需期의 石油在庫의 소비량은 하루 3천만배럴 정도가 되어 例年수준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自由世界에 있어서 내년 3月末의 석유재고량은 45억배럴 이하로 감소하여 石油의 과잉재고는 거의 해소되는 셈이 된다. 이것은 石油의 供給過剩이 내년 4月末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總會 직후의 야마니石油相의 발언이 근거있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이후 또 다시 石油의 非需期에 들어가게 되어 在庫의 索增수요가 늘어났다 해도 石油수급이 屢박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라크戰爭 등 中東情勢에 격변이 없는 한 國際石油情勢는 당분간 小康狀態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OPEC 油價推移



資料: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